

LOCAL

2025년 4월 2일 수요일

여수 낭만포차 영업 재개 식품 위생·안전한 환경 제공

시설 개선 공사로 운영이 중단됐던 여수밤바다 낭만포차가 4월 영업을 재개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제9기 낭만포차 운영협의회는 최근 냉난방기 설치, 컨테이너 내부 보수, 노후 천막 교체 공사를 진행, 4월 영업을 시작했다.

시는 냉난방기의 과부하와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배선 공사를 지원했으며, 낭만포차 운영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낭만포차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단장한 낭만포차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색다른 경험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낭만포차의 하절기(3~10월)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며, 동절기(11~2월)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전 0시까지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고흥, 올해 공익수당 조기 지급 1인당 60만원...고흥사랑상품권

고흥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림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2025년 농림어업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1만 6102명으로 1인당 60만원씩 지급되며, 이를 위해 예산 97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지급 방식은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공익수당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을 경영한 자로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다만 농림어업 및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등 부정 수급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농림어업인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한 마을별 지정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방문해 고흥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지급되는 고흥사랑상품권은 정책발행용으로 발급돼 농협하나로마트 등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장성군이 4월 진원면과 북하면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총 10개 읍·면에서 지역의 향토성이 담긴 소규모 마을축제를 연다. 사진 왼쪽부터 산동리 유채꽃축제, 황룡 뱃나드리축제, 동화 버베나축제, 삼서 잔디문화축제.

장성, 연중 소규모 마을축제로 매력 발산

올해 4~10월 산동리 유채꽃축제 등 10개 운영 김한중 군수 “다양한 콘텐츠 기획...추억 선사”

장성군이 4월 진원면과 북하면을 시작으로 가을까지 총 10개 읍·면에서 지역의 향토성이 담긴 소규모 마을축제를 연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4월 20일 진원면 ‘산동리 유채꽃축제’로 산동리에 조성된 유채꽃밭을 무대로 승마 체험, 유채꽃 체험, ‘포토존’, ‘스탬프 미션’ 등을 운영한다. 올해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휴식존’, ‘버스킹 존’ 등을

세심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26~27일에는 북하면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산나물축제’가 기다린다.

산나물 산지로 유명한 지역의 역사성을 접목해 축제로 기획했다. 장성호관광지에서 열리며 태양 관측, 산나물 채취, ‘산채비빔밥 퍼포먼스’ 등 독특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5월 4~5일에는 황룡면 ‘황룡강 뱃나

리축제’가 펼쳐진다. 지난해 큰 주목을 받은 나룻배 체험과 재미있는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등이 마련된다. 어린이날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장기 자랑, 마술쇼 등도 준비될 예정이다.

6월에는 동화면 ‘동화나라 버베나축제’가 관객맞이에 나선다. 더 풍성하게 피어난 보랏빛 버베나(버들바래초)와 수국으로 물든 램프공원에서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등 체험 프로그램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가을이 깊어지는 9~10월에는 삼서면 ‘잔디문화축제’, 서삼면 ‘장성 축령산 편백숲 자락축제’, 장성읍 ‘영천막걸리축

제’, 북이면 ‘삼남대로 거리예술한마당’, 북이면 ‘효사랑축제’, 남면 축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삼서면 ‘잔디문화축제’는 전국 잔디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삼서면의 정체성을 반영한 ‘캠핑 감성’의 축제다. 서삼면 ‘장성 축령산 편백숲 자락축제’는 편백숲 속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다.

장성읍 ‘영천막걸리축제’는 지역 주조장에서 만든 다양한 막걸리들을 맛볼 수 있다. 북이면 ‘삼남대로 거리예술한마당’은

사거리전통시장을 무대 삼아 지역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다.

북이면 출신 서능 선생의 깊은 효행을 기리는 ‘효사랑축제’는 3대가 함께 즐기는 가족 친화형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남면은 현재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축제를 기획하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지난해 처음 개최한 소규모 마을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며 “가족, 친지와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영암문화관광재단, 영호남 문화교류 앞장

부산문화재단과 협약...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협력

(재)영암문화관광재단은 최근 가야금산조기념관에서 (재)부산문화재단과 ‘영-호남의 문화교류’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호남의 대표적인 문화 사업인 영암의 왕인박사와 부산의 조선통신사를 중심으로 뜻을 모아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각 재단의 문화 사업 콘텐츠 교류 협력,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왕인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공동 발전을 위한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재환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의 조선통신사와 영암의 왕인박사를 매개로 양 기관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일 문화교류의 중요한 상징을 부각시켜 전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적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뜻 깊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고필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는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에 조선통신사와 왕인박사는 영-호남의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선통신사와 왕인박사가 한일 간 평화적 교류의 상징으로 더 자리를 잡을 수 있



도록 양 기관의 노하우를 활용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도일행자가 가지고 있는 문명사의 전환을 구현하고 왕인박사에 대한 분석과 활용을 통해 인문 축제로 확장하는 마중물 역할을 선보였다. 영암=한창희 기자 hck1342@

신안, 농식품부 농촌특화지구 공모사업 선정 농촌공간 재생사업에 100억 투입...“소멸 위기 극복”

신안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모한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주거, 산업, 경관 등의 기능을 하나로 집적화해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보존하는 것이다.

신안군은 이번 농촌특화지구에 선정되면서 지방비 50억원을 포함한 총 100억원을 확보했다.

사업대상지는 팔금면 원산리로, 경관농업지구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3개 지구 유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관농업지구’는 유채꽃밭을 활용해 산책로와 휴게시설 공간 등을 마련한다.



‘농촌융복합지구’는 유채와 바나나 등의 특화 작물들을 6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판매장, 농촌교류체험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원산마을을 지정하고 빈집과 유휴시설 등의 정비와 이설로 농촌다움을 보존하고 청년들의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판촉물 트로피 기념품 상패 휘장 ”

www.광주판촉물.com

‘광주사람’은 ‘광주판촉물’ 이지..

062) 376-5431

서구 삼우중로75, M&E빌딩 1층